

“디지털 경제 시대, 소비자의 ‘어텐션’을 잡아라!”

GIST 아카데미, 9월 조찬포럼 개최

- 기초교육학부 하대청 교수,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‘주의’ 능력의 경제적 가치 강조



▲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9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아카데미가 9월 26일(월) 오룡관에서 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**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주의 경제**’를 주제로 9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.

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하대청 교수는 강연에 앞서 사용자 **의 주의(attention)가 디지털 기업 수익의 주요 원천**이며, 한정된 사용자의 주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, 페이스북, 넷플릭스 등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.

하대청 교수는 **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주의 능력이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경제적 자원**이 되었으며, 무엇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 지가 상당 부분 개인의 선택보다는 **디지털 기술과 상호작용한 결과**라고 강조했다.

또한 하대청 교수는 ‘**들뜬 주의력**’을 ‘**깊은 주의력**’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‘**들뜬 주의력**’은 짧은 시간 동안만 주어진 임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대신 **동시에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, 주의 경제 시대에 사용자의 주의력 분산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**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.

GIST 아카데미는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(2010년 개원)와 기후변화아카데미(2016년 개원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「GIST 아카데미 조찬포럼」을 개최하고 있다.

GIST 아카데미는 각 분야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전략 등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